

통계로 보는 경남교육 종단연구

이슈페이퍼

2024년
10월호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 발행인 이수광 | 발행일 2024.10.21.



경남지역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 현황과 방과후 학교 참여에 대한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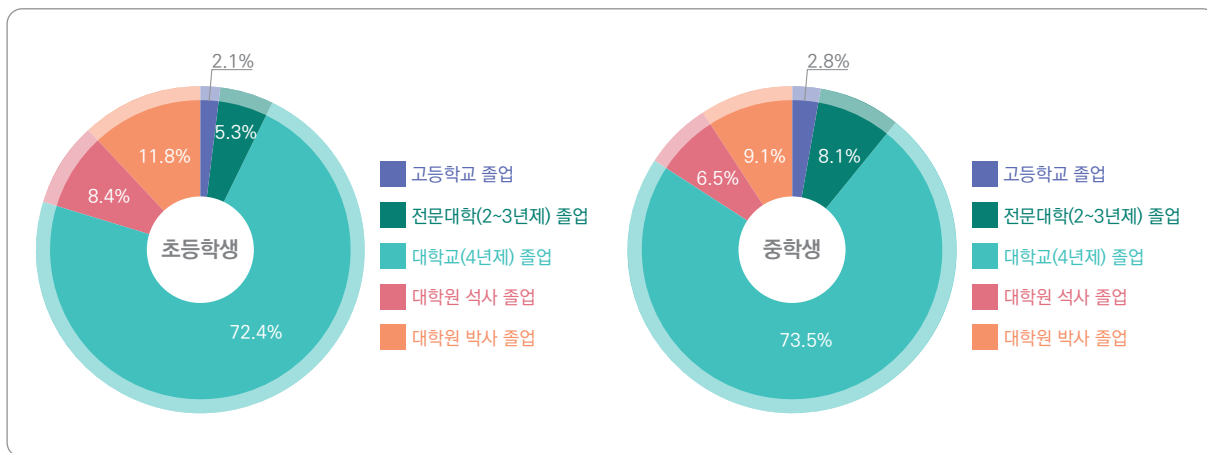
구경호(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책임연구원)

- 본 연구는 경남교육종단연구의 2021년~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경남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학부모¹⁾의 자녀 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
- 분석자료 : 경남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종단연구 패널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 자료이며, 최종 분석에 사용한 학부모 자료는 초등학교 4학년 3,508명, 5학년 2,570명, 6학년 2,029명, 중학교 1학년 1,286명, 2학년 929명임.

01.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

1. 기대 학력

-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어느 과정까지 공부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분석²⁾ 결과,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대학교(4년제) 졸업 72.4%, 대학원 박사 11.8%, 대학원 석사 8.4%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학부모의 경우 대학교(4년제) 졸업 73.5%, 대학원 박사 9.1%, 전문대학(2~3년제) 8.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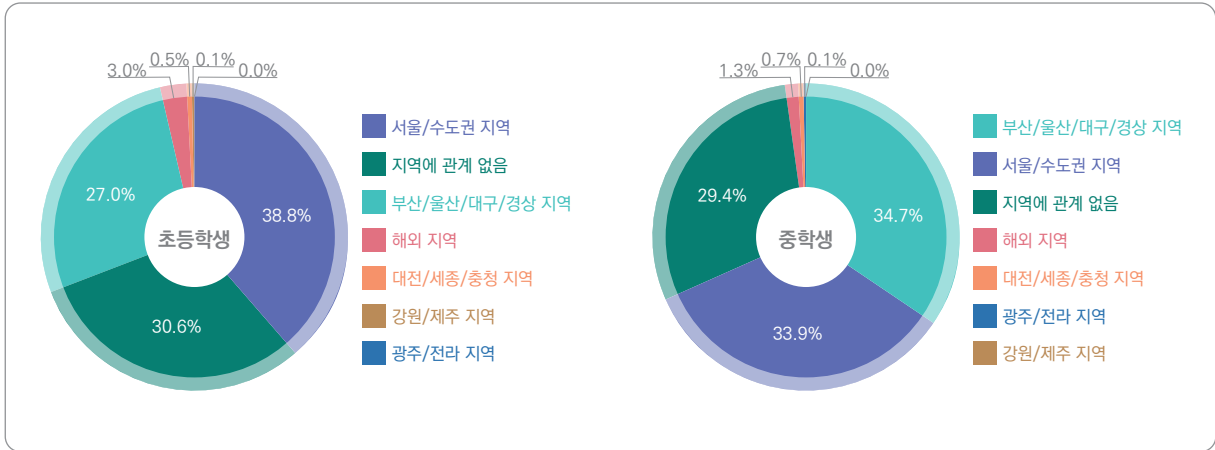
[그림 1] 기대 학력(단위: %)

1) 종단연구 설문 문항에는 학부모(보호자)로 병기하여 조사하였음. 본 보고서에서는 학부모로 기술함.

2) 자녀가 어느 과정까지 공부하기를 원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초등학교 학부모의 3년 응답 자료(2021년~2023년)와 중학교 학부모의 2년 응답 자료(2022년~2023년)의 평균값을 분석함.

2. 희망 진학 대학 : 소재 지역 기준

- 자녀가 어느 지역의 대학교로 진학하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서울/수도권 지역 38.8%, 지역에 관계없음 30.6%, 부산/울산/대구/경상 지역 27.0%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학부모의 경우 부산/울산/대구/경상 지역 34.7%, 서울/수도권 지역 33.9%, 지역에 관계없음 29.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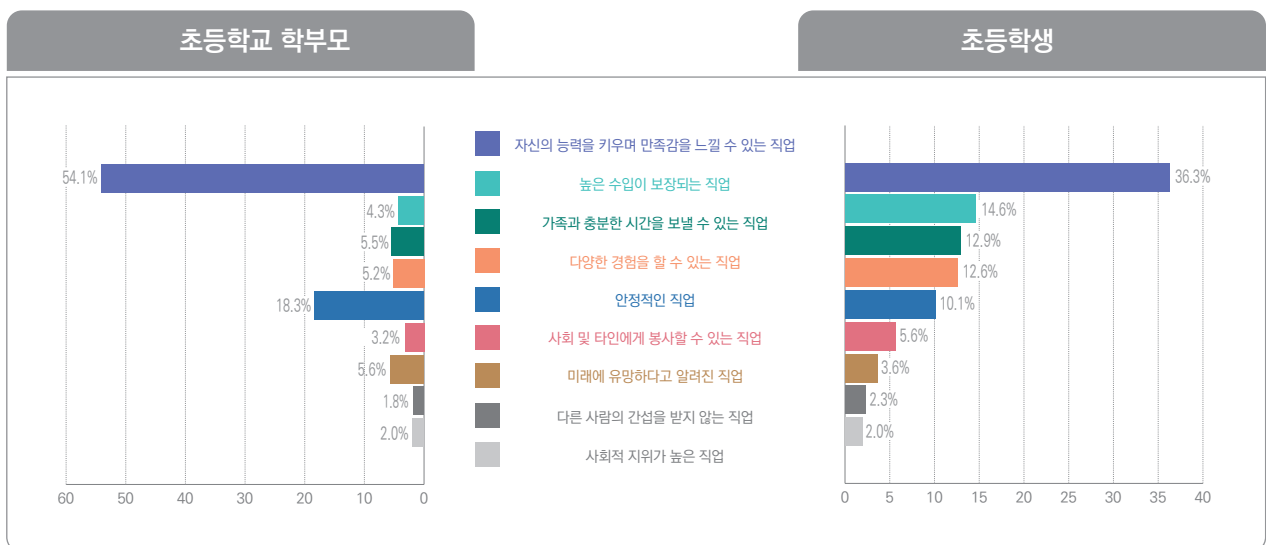
[그림 2] 희망 진학 대학: 소재 지역 기준(단위: %)

3. 희망 직업 : 학부모와 학생 간 응답 비교

- ‘자녀가 장래에 어떤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의 응답과 해당 자녀의 응답을 비교함. 초등학교는 3년 종단 자료를, 중학교는 2년 평균 종단 자료를 평균하여 제시함.

가. 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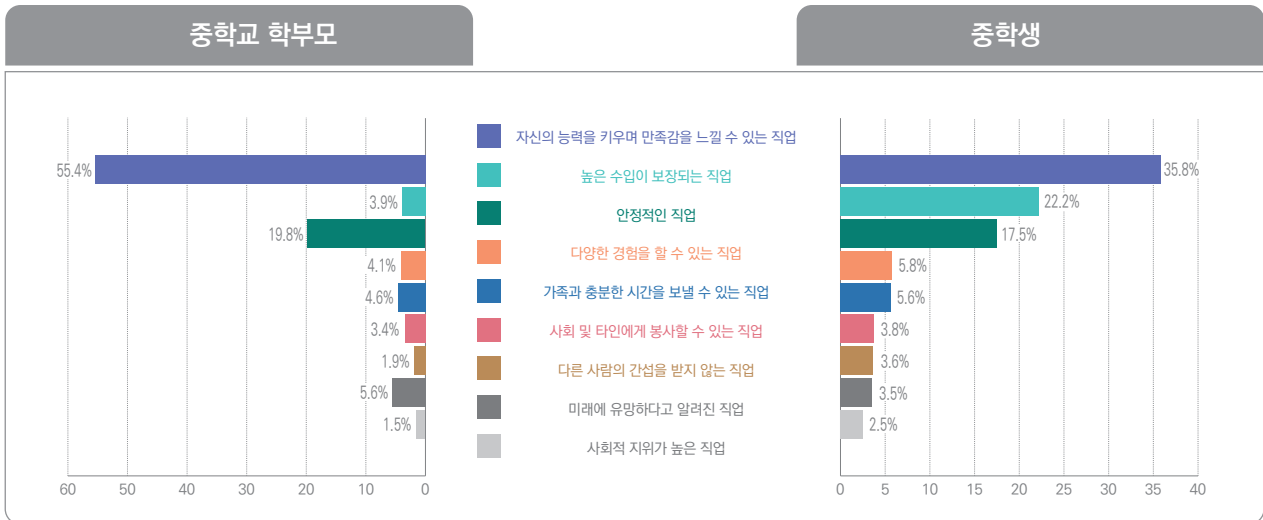
- 초등학교 학부모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 54.1%, ‘안정적인 직업’ 18.3%, ‘미래에 유망하다고 알려진 직업’ 5.6% 순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 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키우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 36.3%, ‘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 14.6%,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직업’ 12.9% 순으로 나타남.



[그림 3] 희망 직업: 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응답 비교(단위: %)

나. 중학교 학부모와 학생

- 중학교 학부모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 55.4%, '안정적인 직업' 19.8%, '미래에 유망하다고 알려진 직업' 5.6% 순으로 나타남.
- 중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키우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 35.8%, '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 22.2%, '안정적인 직업' 17.5% 순으로 나타남.



[그림 4] 희망 직업: 중학교 학부모와 학생 응답 비교(단위: %)

02.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

1. 학습지원³⁾

- 학부모의 자녀 학습지원 양상을 직접지원(4문항)과 간접지원(4문항)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Q1 자녀에게 공부 방법에 대해 조언한다.

Q2 자녀의 학교 공부와 숙제를 확인한다.

Q3 자녀의 공부를 직접 가르친다.

Q4 자녀의 평소 생활을 확인하고 일정을 관리한다.



직접지원 측정 문항

Q5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격려한다.

Q6 집안의 공부 분위기를 조성한다.

Q7 자녀의 과외나 학원을 결정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한다.

Q8 자녀의 공부를 위한 지출(학원비, 과외비, 참고서 구입 등)은 아끼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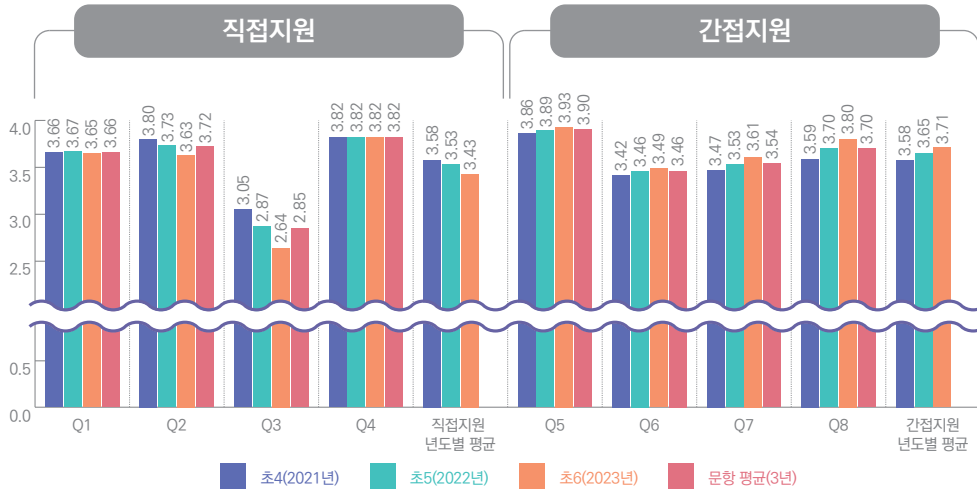


간접지원 측정 문항

3)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부모의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현황을 측정할 값은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구성됨. 분석 결과는 문항별 평균값으로 기술함.

가. 초등학교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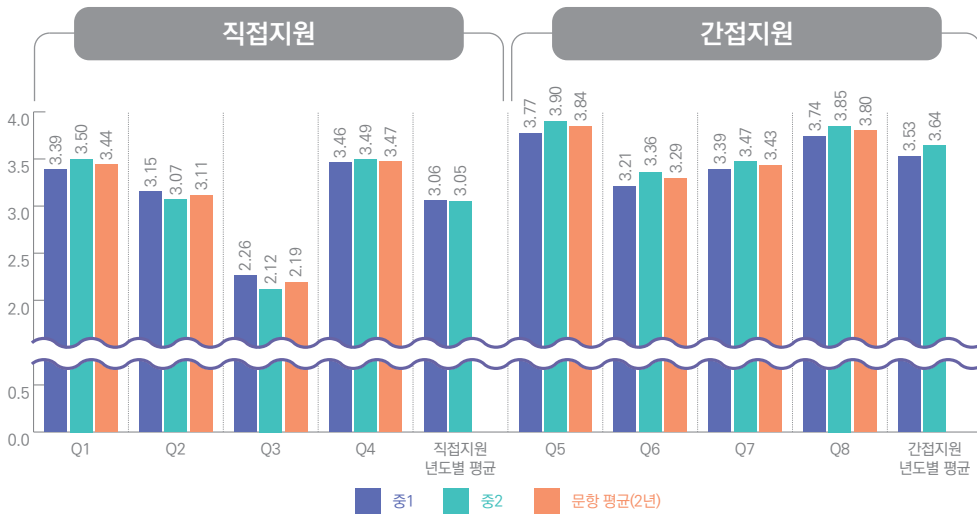
- 초등학교 학부모의 직접지원 양상을 조사한 결과, 'Q4. 자녀의 평소 생활을 확인하고 일정을 관리한다.'가 3.82로 가장 높으며, 'Q3. 자녀의 공부를 직접 가르친다.'는 2.85로 가장 낮음.
- 간접지원 양상을 조사한 결과, 'Q5.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격려한다.'가 3.90으로 가장 높으며, 'Q6. 집안의 공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3.46으로 가장 낮음.
- 년도별 직접지원의 평균값은 매년 낮아지며, 간접지원의 평균값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5]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학습지원(문항 평균, 5점 만점)

나. 중학교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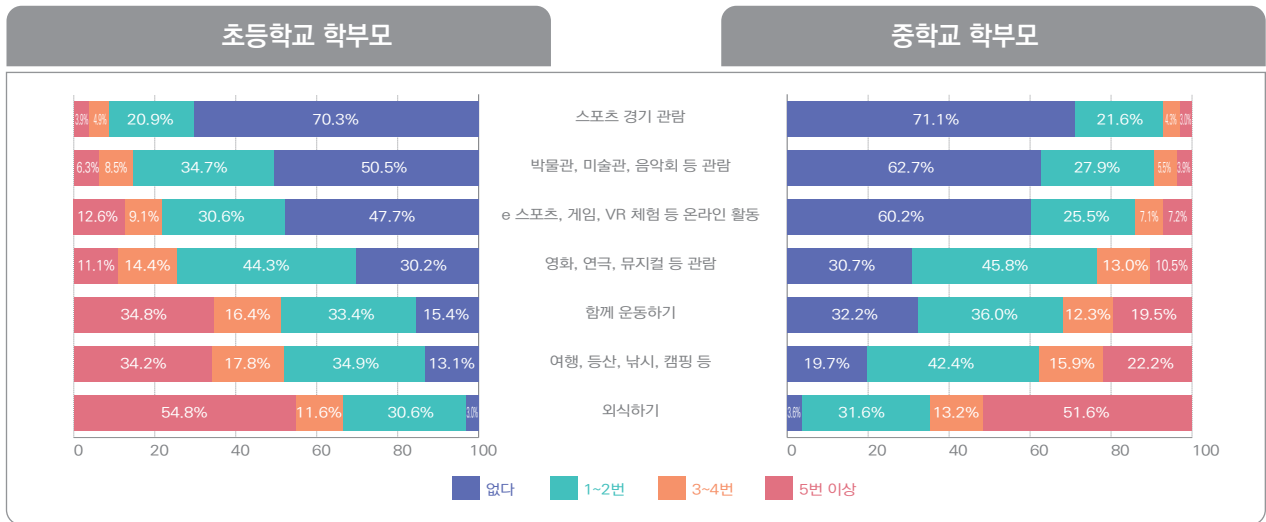
- 중학교 학부모의 직접지원 양상을 조사한 결과, 'Q4. 자녀의 평소 생활을 확인하고 일정을 관리한다.'가 3.47로 가장 높으며, 'Q3. 자녀의 공부를 직접 가르친다.'는 2.19로 가장 낮음.
- 간접지원 양상을 조사한 결과, 'Q5.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격려한다.'가 3.84로 가장 높으며, 'Q6. 집안의 공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3.29로 가장 낮음.
- 년도별 직접지원의 평균값보다 간접지원의 평균값이 높고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6] 중학교 학부모의 자녀 학습지원(문항 평균, 5점 만점)

2. 동반 문화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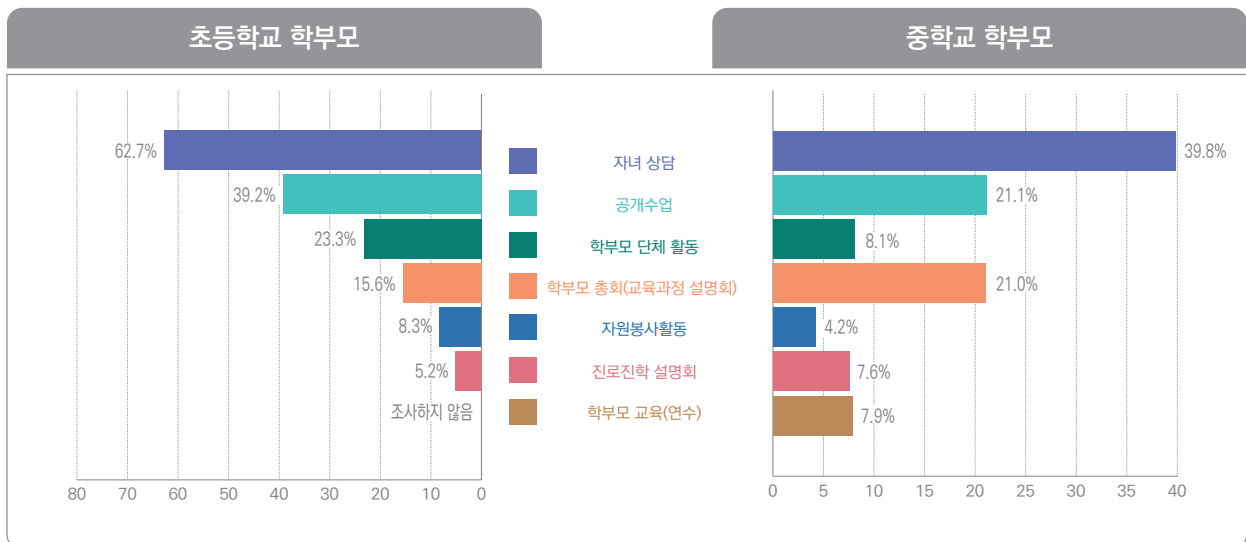
- 자녀와의 동반 문화활동 빈도를 분석하였으며, 초등학교 학부모 3년 자료와 중학교 학부모 2년 자료를 평균하여 결과를 제시하였음.
- 7가지 각 항목별로 1회 이상 동반 활동을 하였다고 응답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비율을 살펴보면, 외식하기 97.0%, '여행, 등산, 낚시, 캠핑' 86.9%, 함께 운동하기 84.6% 순으로 활동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중학교 학부모의 경우 외식하기 96.4%, '여행, 등산, 낚시, 캠핑' 80.3%, 영화, 연극, 뮤지컬 관람 69.3% 순으로 1회 이상 동반 활동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7] 학부모와 자녀의 동반 문화활동(단위: %)

3. 학교 활동 참여

-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활동 중 학부모가 1회 이상 참여 한 경험 유무를 각 활동별로 '있다'와 '없다'로 조사하였으며, 참여한 경우의 비율만을 각 항목별로 평균(초등 3년 및 중등 2년)하여 제시하였음.
-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자녀 상담 62.7%, 공개수업 39.2%, 학부모 단체 활동 23.3% 순으로 1회 이상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중학교 학부모의 경우 자녀 상담 39.8%, 공개수업 21.1%, 학부모 총회(교육과정 설명회) 21.0% 순으로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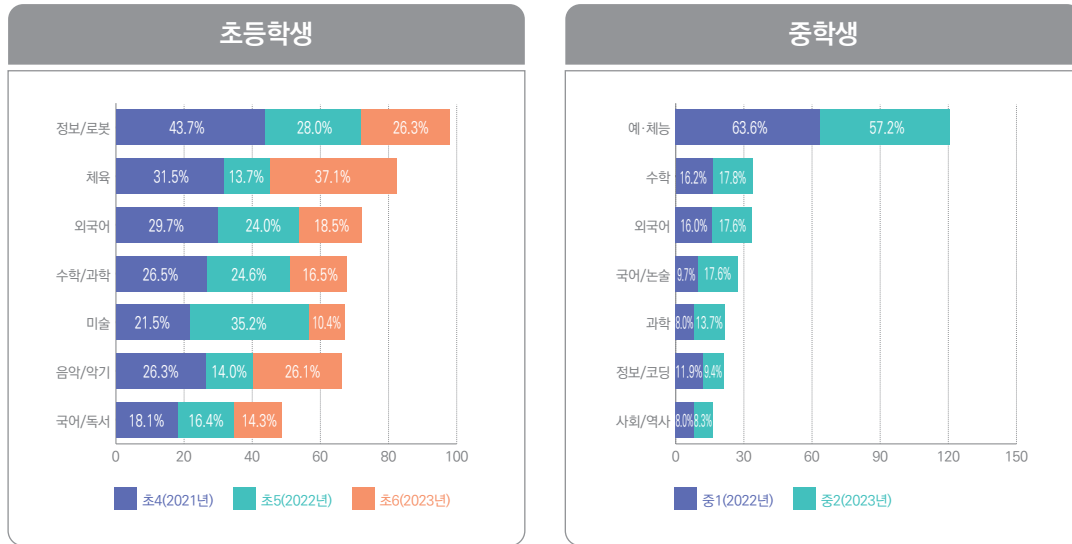


[그림 8] 학부모의 학교 활동 참여(단위: %)

03. 자녀의 방과후 학교 참여에 대한 인식⁴⁾

1.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별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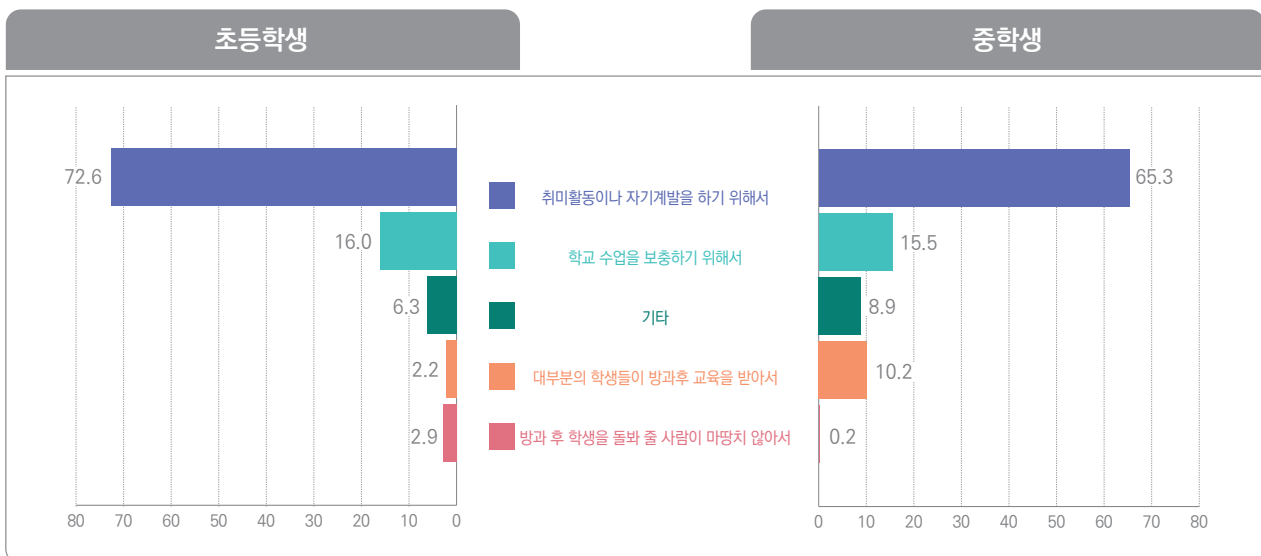
- 매년 1학기(3월~6월)를 기준으로 자녀가 참여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별 참여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정보/로봇 98.0%, 체육 82.3%, 외국어 72.2% 순으로 3년 누적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중학생의 경우 예·체능 120.8%, 수학 34.0%, 외국어 33.6% 순으로 2년 누적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9]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별 참여율(단위: %)

2.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이유

- 방과후 학교에 자녀가 참여한 이유에 대해 학부모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면,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취미활동이나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서 72.6%, 학교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서 16.0%, 기타 6.3%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3년 평균값 기준).
- 중학교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취미활동이나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서 65.3%, 학교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서 15.5%,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과후 교육을 받아서 10.2%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2년 평균값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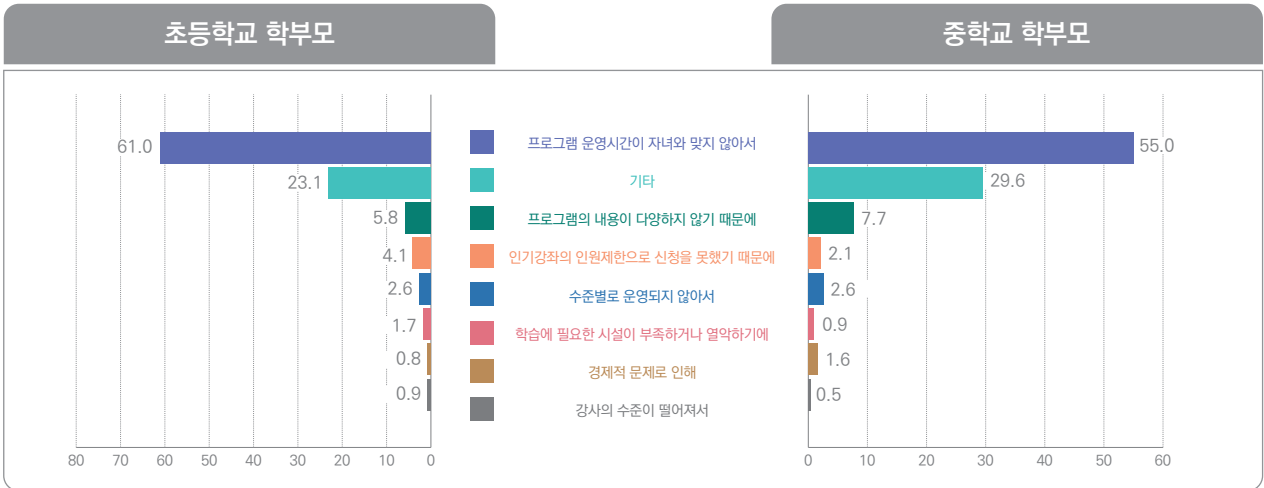


[그림 10]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이유(단위: %)

4) 자녀의 방과후 학교 참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자료(경남교육재단연구 2021년~2023년)를 분석함.

3.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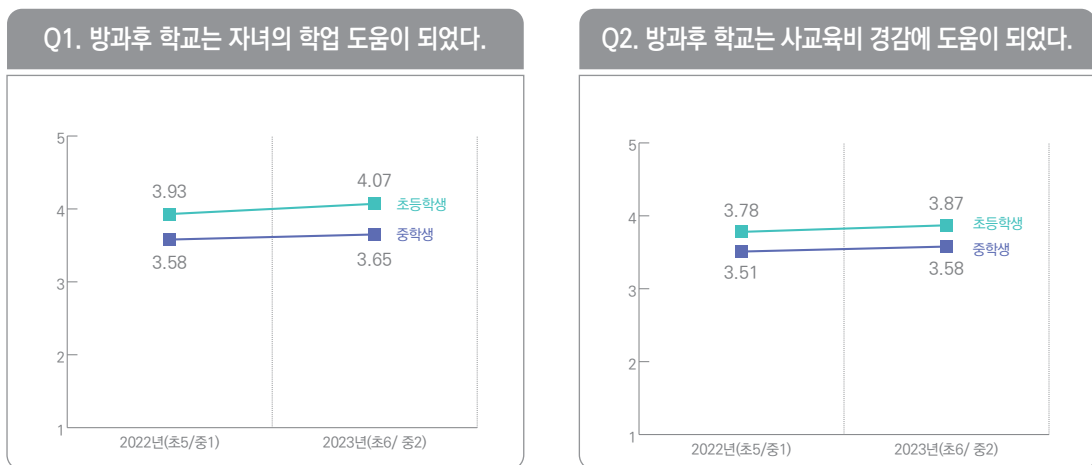
- 자녀가 참여한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학부모의 응답 결과,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자녀와 맞지 않아서 61.0%, 기타 23.1%,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5.8%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3년 평균값 기준).
- 중학교 학부모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자녀와 맞지 않아서 55.0%, 기타 29.6%,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7.7% 순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2년 평균값 기준).



[그림 11]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단위: %)

4.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만족도

- 자녀가 참여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을 묻는 설문 문항⁵⁾은 “Q1. 방과후 학교는 자녀의 학업 도움이 되었다.”와 “Q2.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었다.”로 구성됨.
-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문항 Q1의 2년 평균은 4.0, 문항 Q2의 2년 평균은 3.82로 둘다 문항당 평균값 3.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문항 Q2(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됨)의 점수보다 문항 Q1(학업에 도움이 됨)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중학교 학부모의 경우 문항 Q1의 2년 평균은 3.62, 문항 Q2의 2년 평균은 3.55로 둘다 문항당 평균값 3.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문항 Q2(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됨)의 점수보다 문항 Q1(학업에 도움이 됨)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2]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만족도(문항평균, 5점 만점)

5)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측정됨.

연구 요약

- 경남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학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희망직업은 '자신의 능력을 키우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응답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녀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에 대한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학습지원 양상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부모 모두 '자녀의 공부를 직접 가르치거나 조언하는' 직접지원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격려하는' 간접지원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가장 많이 하는 동반 문화 활동으로 '같이 외식하기'가 높으며, '스포츠 경기관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활동에 대한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 모두 '자녀 상담'에 참여한 경험이 높으며, 각각 '진로진학 설명회'와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방과후 활동 중 가장 많이 참여하는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정보/로봇 프로그램'으로, 중학생의 경우 '예·체능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주요 이유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부모 모두 '자녀의 취미활동이나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서'로 응답하였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프로그램 운영시간이 자녀와 맞지 않아서'로 응답하였다.

방과후 학교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만족도의 경우 '자녀의 학업에 도움이 되었다'와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었다'에 각각 문항당 평균 3.51~4.07(5점 만점)로 응답하였다. 특히, 사교육 경감에 대한 응답 분포는 초등학교 2년 평균값 3.82와 중학교 2년 평균값 3.55이며 매년 만족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경남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는 방과후 학교의 사교육 경감 효과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방과후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실현 및 학생의 전인 발달을 돕고자 시작되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 시·도 교육청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참여 학생의 학력향상, 소질 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에는 여전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선행연구⁶⁾ 및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동일하게 나타났다.
-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창의적인 특기·적성 프로그램 및 학력향상을 고려한 일반교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로봇, 코딩, 3D 모델링, 드론 등의 진로·특기·적성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6) 출처: 정현용. (2020).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 분석. 방과후학교연구, 7(1), 35-56.